

'웰빙시대' 고기 덜 먹고 채소 더 먹는다

경기침체·성인병 우려에 채식 선호 지난해 과일 소비 9%·채소 5% 늘어

작년 고기 소비 증가 폭이 2004년 광우병 파동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심지어 고기 소비가 줄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 채식 선호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일 소비는 광우병 파동 이후 크게 늘었다. 고기 관련 업종은 매출이 줄고 수익도 감소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육류 소

비 지출은 월평균 4만9166원으로 전년(4만9161원)보다 0.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육류소비액은 2005년 이후 등락을 있었지만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 5.5%, 2011년 6.2%에 이어 지난해에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다.

돼지고기 가격 등이 큰폭으로 하락했는데도 고기 소비가 줄어든 데는 고기 섭취로 인한 성인병 우려 등이 커지며 소비자들이 육류 소비를 줄인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육류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비만 등으로 인한 성인병 우려가 커지자 고기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작년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kg당 평균 3707원으로 전년(5448원)보다 32.0%나 떨어졌다. 소고기 경락가격은 kg당 1만 2269원으로 2011년(1만1590원)보다 5.9% 높아졌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경우 육류 소비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파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지난해 육류 소비액은 월평균 6만4509원으로 전년(6만4781원)보다 0.4%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2011년 3만3천897원에서 작년 3만4천 407원으로 1.5% 늘어 대조를 이뤘다.

실제로 채식 선호 현상에 따라 과일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과일 및 과일가공품 소비액은 월평균 4만3천314원으로 전년(3만9천841원)보다 8.7% 늘었다. 이는 2004년(16.7%)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이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도 작년 월평균 소비액이 3만9679원으로 전년(3만 7634원)보다 5.4% 증가했다.

김병률 농업관측센터 센터장은 "저소득층의 육식 섭취 현상은 계속 되지만 고소득층은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며 "과일은 건강적이고 후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고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대출자들 빚 안갚고 버티기

연체율 6년4개월래 최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상승했다.

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정부가 구제해줄리란 기대감에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영향도 있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5%p 오른 1.04%라고 28일 밝혔다. 2006년 10월(1.07%) 이후 6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1.01%를 기록해 1%를 넘었다.

가계대출 잔액 459조5000억원 가운데 312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02%p 오른 0.96%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8월 1.03%를 기록한 뒤로 1%를 넘는 적이 없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은 0.01%p 오른 1.99%로 2%에 육박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리는 것으로, 2010년 12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일반 부통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도 1.21%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지난해 8월의 1.23% 이후 가장 높다.

/연합뉴스

짓다 만 건물 광주·전남 43곳

전국 442곳...건설업체 부도·자금 부족 원인 89%

건물을 짓다가 만 채로 방치한 공사 현장을 광주·전남 43곳을 비롯해 전국 4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공사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진 현장이 442곳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서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 부족이 89.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소송·민원 등 '분쟁'이나 '감리포기·시공사 재선정·문화재 발

굴' 등의 여파로 공사를 멈춘 경우는 각각 6.6%와 4.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9곳, 제주 44곳 순이었다. 광주·전남은 43곳이었다.

광주·전남의 경우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 현장이 18곳, 기타(단독주택, 공업·교육사회용 건축물 등) 15곳, 공동주택용 10곳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방치된 현장이 가장 많은 22곳을 기록했고 ▲10년 이상 16곳 ▲3년 이상 5년 미만 3곳 ▲3년 미만 2곳이었다.

보고서를 집필한 장경석 입법조사

관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과 그 현장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악용돼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장 조사관은 "예치금 사용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방치된 현장이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감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월 말 민주당통합 신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해 4월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꽃놀이 갈땐 '꽃바지'

28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 5층 플라스틱아일랜드 매장에 화사한 '꽃 프린트 바지'를 선보였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편리해 다양한 연령대 여성고객이 찾는 이 상품은 4만9000~10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공공기관 수장들 인사태풍 부나

강만수 산업은행장·이지승 LH사장 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꼽히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28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으로선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9일 산은금융 주주총회를 마치고서 사퇴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전 정부에서 5년간 'MB노믹스'의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퇴 압박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은 민영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많아 당장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오

기도 했다.

공공기관 수장들을 대거 물고이하라는 의중이 이 발언에 담긴 것으로 읽고 자진 사퇴를 갑자기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최근 강 회장이 강하게 추진해온 다이렉트뱅크의 금리 산정체계를 지적하고 급속한 영업점 확대를 문제 삼은 것에도 강 회장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다.

한편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승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의표명은 지난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의 출사퇴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남신보, 해남 지점 개점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해남을 비롯한 완도와 진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한층 편리하고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남군 해남읍에 지점을 개점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해남지점 개설에 따라 그동안 보증을 받기 위해 목포와 강진으로 가야했던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해소될뿐 아니라, 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신보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의 순천, 목포, 화순에 더해 2011년에는 장성과 강진에 영업점을 개설했으며, 올해 여수와 해남에 이어 고흥지역에도 지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특히 지점 개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보증 공급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최근 광양시와 완도군 등이 지점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농어촌공 172개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현윤)는 28일 기동점검반과 18개 지사 기술 인력을 투입, 172개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점검을 벌여 150여건을 시정 조치했다.

전남본부는 또 이달 29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발파작업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험

www.kjhr.com

디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웨딩홀 새단장 기념

Special

신양 웨딩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니문카드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돌잔치, 교회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 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시
-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